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연금보험 뜯어보기

고령일수록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유리

고정 자산보다 연금소득 많아야 노후가 안전

연금 차이 많이난 연금전환특약 상품 피해야

정부가 최근 적자투성이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면서 노후만큼은 든든하다던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올해만 6천7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이대로 가면 2010년 2조1천430억원, 2020년 8조9천890억원, 2030년 18조100억원 등으로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까지 소득보상률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의 30~40대가 연금을 받을때면 실제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고령화·저출산 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노령층을 부양해야하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커지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장수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노후를 보장하는 3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퇴직연금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원을 확보해야한다. 노후생활의 질이 축적된 자산보다는 고정적인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로소득원 중 연금소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사적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연금전환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연금보험은 확정금리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며 연금전환이 가능한 기타 보험상품에는 종신보험과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다.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월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으로 초기에는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고 차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반면 종신보험과 같이 연금전환 특약을 가진 보험의 경우 연금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게되어 연금액이 현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란 생명보험협회가 3년 주기로 사망위험률, 질병위험률 등을 발표하는 통계치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사망위험률이 낮아질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게되며, 평균여명이 늘어날 경우 동일한 적립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시점 경험생명표의 평균여명이 80세였고, 연금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 평균여명이 90세일 경우 연금보험은 평균여명 80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만, 연금전환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일 경우 평균여명 90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돼 동일한 적립금을 연금전환 할 경우 연금보험액 20%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개인이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층일 수록 장기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고,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투자위험이 없는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미국인 3명 중 1명 삼성 휴대전화 쓴다"

對美수출 10년만에 1억대 돌파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미국 진출 10년 만에 누적 판매 1억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를 1억대 이상 판매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997년 삼성전자 미국통신법인(STA)을 설립, 미국 스프린트사에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를 처음 수출한 지 10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누적판매 1억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인설립 10주년 1억대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 JFK 공항과 댈러스 공항 내에 감사메시지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대형 휴대전화 충전소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누적 판매량이 1억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미국인(2006년 10월 현재 3억 명) 3명 중 1명꼴로 삼성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량은 미국 진출 4년 만인 2001년 1천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3년만인 2004년 5천만대를 넘어섰고 2년 뒤인 올해 12월에 1억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기업도시 성공 하려면 SOC 더 깔아줘야"

전경련 보고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다.

전경련은 14일 내놓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과제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는 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근거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부처의 이해부족으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방 일부 주택시장 내년이 더 불안하다"

"大選·원가공개 등 잠재요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각종 가격상승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불안한 가운데 지방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시장전망'을 주제로 열린 제46회 한경연포럼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송파신도시 개발의 진행 여부 ▲용산 개발의 방향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의 진행 ▲대선국면과 연계된 시장의 반응과 기대 ▲원가공개와 후분양 적용의 시행방향과 세부내용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특히 이사철인 내년 봄에 수도권 전세가격이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아파트는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수도권의 경우 강남 3개구 등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감소하는데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는 2주택 보유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도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입주율이 저조한 가운데 신규 분양대기 물량이 여전히 풍부해 가격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기농박람회 나온 '탑라이스' 서울 코엑스에서 14일 개막된 친환경 유기농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시판 1주년을 맞은 최고급 쌀 브랜드 '탑라이스'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왜 나왔나

"제조업 '고용없는 성장' 버리고 서비스업에서 성장엔진 찾겠다"

정부가 좀처럼 늘지 않는 고용과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서비스업에서 찾겠다고 나섰다.

해방 이후 '주식회사 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제조업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궤도 수정해 서비스업에서 고용과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21개 정부부처가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이런 면에서 지난 수년간 나왔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나 업종·부문별 서비스산업대책을 하나로 모은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매년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장률 만큼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였다.

올해 역시 5% 선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 증가는 3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년층 실업률이 7~8%를 오르내린다는 점은 대증요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제체질의 변화를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연평균 4만개씩 줄어들어 모두 67만개가 사라진 것과 반대로 서비스업에서는 연평균 42만개씩, 6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두드러지는 관광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10억원이 늘면 고용이 52.1명 증가해 제조업(14.4명)의 3.6배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서비스업 고도화의 필요성은 이런 '주판 튕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서비스업 대책에는 업종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보유가 필수적임에도 제조업체에 비해 토지보유세 등 세부담이 무거운 물류, 호텔업, 골프장 등 서비스업종의 부담경감이나 문화산업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업의 문화비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제도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의료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다.

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고 여기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에 '경영'의 개념을 접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자동차 불량부품 사라진다

빠르면 2008년부터 '부품 인증제' 도입

이르면 2008년부터 자동차 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부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6가지 필수 자동차 부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반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가 규정한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림(타이어지지 회전체)·브레이크 파이프·등화장치·브레이크액·창유리·안전벨트·유아용 보호장구·이륜차 헬멧·후부 안전판·CNG탱크·안전 삼각대 등이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 타이어와 승용타이어, 재생공기압 타이어로 세분했고 공기압 타이어는 다시 버스용과 트럭용으로 나눠 총 16개 부품에 이른다.

건교부가 자동차 부품 인증제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중국 등에서 저가부품이 공식적인 인증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불량부품을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합뉴스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산

신한·우리 이어 국민·농협 가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까지 가세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실수요자들도 일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담보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인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접수되는 대출 건을 18일부터 당분간 차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타 은행의 선순위 말소 조건부 대출 즉, 타 은행에서의 대환대출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점장이 전결로 인하해 줄 수 있는 우대금리 한도를 낮춘 것으로 사실상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기업은행도 이날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사전 관리를 위해 실 수요자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2% 포인트 축소,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또 타행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잔금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본점 승인을 거쳐 일부 허용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영정밀(주)	사무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6	062-956-0049
(주)코셋	2007년 분야별 정규직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602-7765
(주)부림	주간업무 A/S물품정리 포장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0	062-953-6462
(유)신일산업	생산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22	062-956-7381
흥안실업(주)	은행지점 전기설비 조작원 모집	고졸/경력1년	1200~1400	12/22	02-849-2591
한진중공업	문서 수발신/현장관리 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22	062-383-6302
한일종합기계(주)	현장 자재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3	062-942-3322
라이프리서치	월간 뉴스라이프 취재기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23	062-263-1114
(주)남양특수강	생산직 경력 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3	062-954-9400
명신정보통신(주)	통신업 정산담당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3	062-456-7804
yk038	(주)YK038 HUM 충청,전라,대구지역 슈퍼바이저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5	02-548-0059
도현물류	물류관리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5	062-944-3355
동원건설(주)	총무/경리/회계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606-6552
(주)웹이즈	바보사랑 물류센터 신입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716-10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상장·등록 제조업체 3분의 1 적자 '허덕'

韓銀 1,520개社 조사

일부 첨단·호황업종의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상이익률이 0%를 밑도는 적자업체가 계속 늘면서 상장·등록 제조업체 가운데 3분의 1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의 비중도 30%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천520개 상장·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3·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가운데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이 0% 미만인 적자업체의 비중은 3분기에 33.9%를 나타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업체의 비중은 올해 1분기 26.8%에서 2분기 31.4%, 3분기 33.9%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한은은 "분기별 경상이익률 분포 분석이 2003년 3분기부터 이뤄져 유의성있는 시계열 통계가 확보돼 있지는 않지만 올해 3분기 적자업체 비중은 관련통계 분석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경상이익률이 20% 이상인 고수익업체의 비중은 6.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상장·등록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7.8%로 전분기의 7.0%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6.3%에서 7.6%로 높아졌다. /연합뉴스